창당 주요인물들중의 하나인 꾸와우테목 카르데나스 (Cuauhtemoc Cardenaz Solorzano)를 따라서 1989 년 민주 혁명당의 일원이 되었다.

2000년 3월 멕시코 시티 시장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시장 선거 입후보 자격 문제 (멕시코시티에 최소 5년간 거주)때문에 선거법원에 (Tribunal Electoral)까지 진행될 정도로논란이 있었지만, 이러한 논란을 불식(拂拭)시키며, 당내부 경선에서 80%의 지지율로민주 혁명당 (PRD)내 멕시코 시티시장 입후보자로 나서, 2000년 7월 2일 국민 행동당(PAN) 입후보자를 1.1%의 지지율 격차로 이기며 당선되었고, 손동작이 결합된 화려한 웅변술과 함께 정치권의 다크호스 (Dark horse)로 등극(登極)하게 되었다.

멕시코 시티 시장 시절 업적에는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재임시절 국민 행동당 (PAN)에서 배출한 비센테 폭스 대통령과 여러면에서 충돌이 있었으며, 대표적인 것이 2012년 멕시코시티 현시장인 마르셀로 에브라드 (Marcelo Ebrad)라고 할수가 있는데, 2004년 12월 멕시코 시티 외곽의 틀라후악 (Tlahuac)에서 발생한 의문의 괴한들에 의하여 연방 경찰 세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당시 멕시코 시티 치안부 장관 직책을 갖고 있던 마르셀로 에브라드가 비센테 폭스에 의하여 직위가 박탈되자, 정치적 탄압으로 간주한 로페스 오브라도르에 의하여 재차 멕시코 시티 사회개발부 장관으로 재임용(再任用)된 사건이 있었다. 마르셀로 에브라도는 이번 멕시코 시티 시장을 끝으로 현재 약속된 공직은 없으나,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내무부 (Secretraria de Gobernacion) 장관으로 약속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Rudolph Giuliani

재임시, 멕시코 시티의 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2002년 미국 뉴욕의 전임 시장인 루돌프 줄리아니 (Rudolph Giuliani)를 자문으로 하여 조직 범죄 소탕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수행한바 있다.

멕시코 시티 시장 재임시 오명이라고 한다면, 2004 년 멕시코시티 재무 담당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비서 구스타보 폰세 (Gustavo Ponce)가 미국 네바다의 라스베가스 카지노장에서 비밀리에 촬영된 것으로, 2003 년에도 37 번에 해당하는 라스베가스 여행을 하였으며, 호텔 숙박비등을 포함하여 대략적으로 멕시코 시티 예산에서 미화 3 백만불의 지출을 하였다는 멕시코 연방 검찰의 혐의를 받고 도주를 하였는데, 사건 초기 로페스 오브라도르에 의한 사건 협조가 이루어 지지 않은 점과 구스타보 폰세와 관련하여 미국 세무 당국과 이루어진 비밀문서를 사전 동의 없이 언론에 발표한점때문에 미국 및 멕시코 연방 기구로부터 비판을 받았었다.







Rene Bejarano



Carlos Ahumada

또한, 동일한 시기,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이전 개인 비서였었으며, 지방 국회하원 의원 레네 베하라노 (Rene Bejarano)가 사업가 카를로스 아후마다 (Carlos Ahumada Kurtz)로부터 미화 4 만 5 천불의 현금을 받는 장면이 촬영된 몰래 카메라가 공공 방송에 방영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도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검찰에의 협조를 하지 않았으며, 추후에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발표하였으나 국민들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에 대한 도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있다.

사업가 카를로스 아후마다는 사건 발생후, 쿠바로 도주하였다가, 쿠바 정부에 연행되어 멕시코에 이송 (移送)되었으며, 해당 사업가는 몰래 카메라는 이전 제도 혁명당 (PRI) 소속이며 전임 대통령 카를로스 살리나스 (Carlos Salinas)의 사주 (使嗾)에 의하여 행한 일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2006 년 멕시코 대통령 입후보전인 2005 년 멕시코 시티 시장에게 부여된 헌법에 기반한 면책 특권 (Fuero)은 멕시코 시티 외곽에 위치한 산타페 (Santa fe) 지역의 엔시노 (Encino) 사법 분쟁에 원인을 둔 사법부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며, 사법부의 요청에 기반, 연방 검찰청 (PGR, Procuraduria General de la Republica)에 의하여 면책 특권 박탈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으나, 정치적 탄압이라는 여론의 성화에 못이겨서 연방 검찰청장이 사임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2006 년 7월 2일 대통령 투표후, 펠리페 칼데론과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차이가 너무 근소하여서 결정을 7월 6일까지 미루다가 연방 선거위원회 (IFE, Instituto Federal Electoral)에 의하여 펠리페 칼데론이 대통령으로 발표되었으나, 해당 결정은 사법부 산하연방 선거 법원에까지 진행되었으며, 해당 법원도 펠리페 칼데론을 대통령으로서 선언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로페스 오브라도르 지지자들은 멕시코 시내에서 제일 큰 거리라고 할 수 있는 레포르마 거리 (Paseo de la Reforma)를 석달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고, 2006 년 11 월 20 일 정통성을 갖춘 대통령으로서 로페스 오브라도르를 대통령으로 선언하게끔 되었다.



2012년 대통령선거를 위하여 민주 혁명당 (PRD)은 노동당 (PT, Partido de Trabajo), 시민 운동당 (MC, Movimiento Ciudadano)과 함께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하여 진보 운동 (Movimiento Progresista)이라는 선거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공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금관련하여;

- 단일 회사세 (IETU)의 폐지
- 세금 납부에 대한 행정 절차 간소화
- 무작위 선출에 의한 세무 감사

- 석유에 대한 지나친 연방 재무 예산의 의존 축소화
- 개인에 관한 소득세에 대한 법률 개정
 - ▶ 세무회기동안 경제 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연말 소득세 신고 의무화
 - ▶ 영세 개인 사업자 및 홀로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에 대한 세무 혜택
 - ▶ 기타 소득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소득으로 신고
 - ▶ 투자 자본에 대한 이익, 상속, 복권등 흔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같은 목적에 의하여 발생한 지출에 대한 공제 및 특별 세율 적율
-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 불규칙적인 것을 정상화 시킬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한 지정
- 지방 정부와 연방 소득세의 비교를 통한 부가가치세 (IVA)의 관리
- 군청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토지세의 현실화 및 관리
- 법인에 대한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매출 폭 확대

노동에 관련하여;

-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의 현실화
- 노동 생산성 향상에 대한 고찰
-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직원들의 회사 경영에 참여 유도
- 노동 조합의 자유 보장
- 노동 조합내의 정부 참여 금지
- 노동 조합 운영위원회 임원들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 및 사퇴 요구 권한
- 노동 조합원들간 이루어지는 직접적이고 비밀이 유지되는 투표 보장
- 노동자들의 연금 보장을 위한 관련 법의 개정
- 노동자들의 연금에 대한 활용 계획에 참여와 정부기관의 책임 소재 명시

경제 및 사회에 관련하여;

- 인플레이션 및 국가 부채 가중(加重)을 피하기 위한 노력
- 농수산업등의 1 차산업 및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국가 지원 및 토목 사업등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用水) 지급